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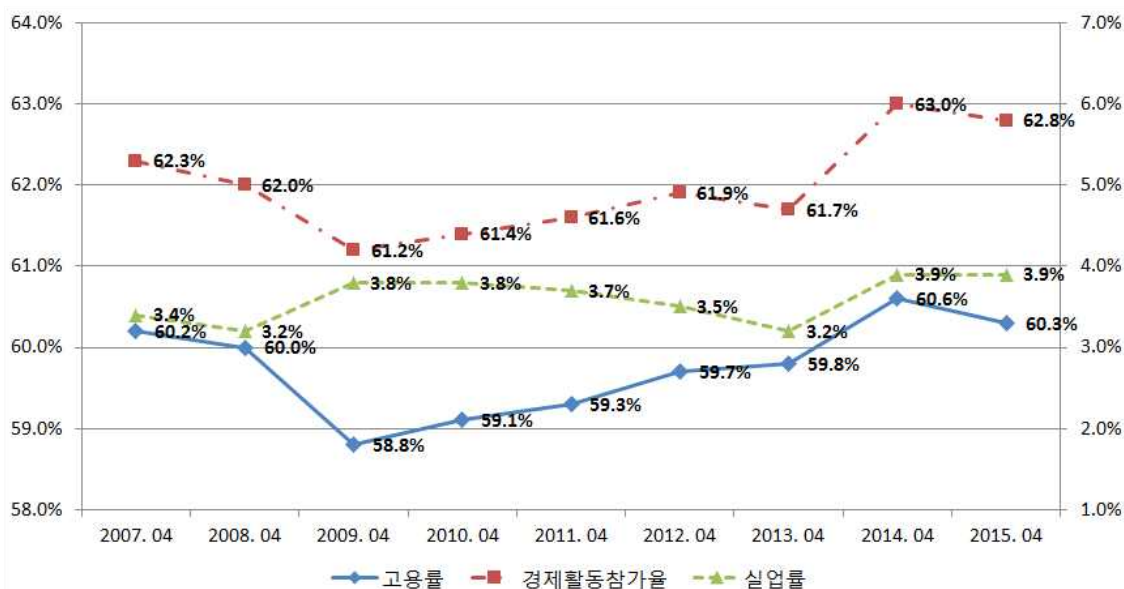
2015. 5.18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mailto:sida7@saesayon.org)

2015년 4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4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조사대상 기간 우천으로 인해 기상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함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4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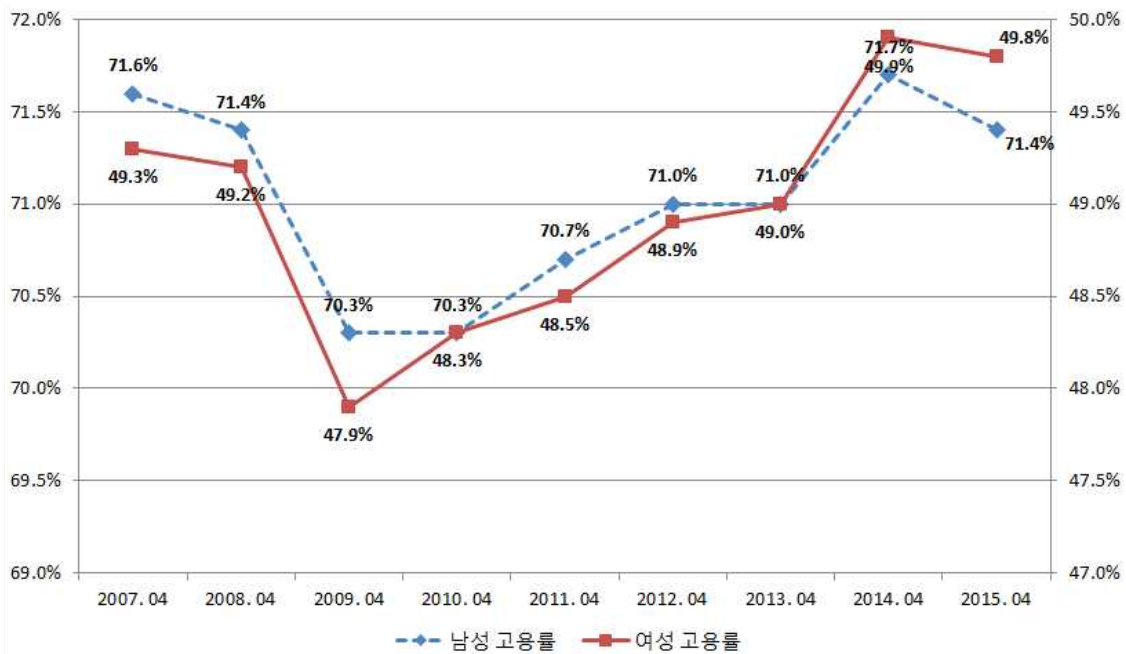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하지만 2014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2015년 들어 전반적으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이 사실임
- 이와 같은 고용지표 개선 속도 둔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2015년 들어 나타나고 있는 고용둔화는 기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2014년에 비해 고용증가 속도가 둔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2014년에 있었던 큰 폭의 고용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일 수도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1.4%, 여성 고용률은 49.8%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성 고용률은 0.3%p, 여성 고용률은 0.1%p 하락함
- 2015년 들어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여성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위기 이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 개선 정도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4년과 같은 빠른 여성 고용률 상승도 의미를 가짐.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가 많은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정책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여성 노동시장 개선 정책이 장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함께 여성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2.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4월 (단위 : %)



※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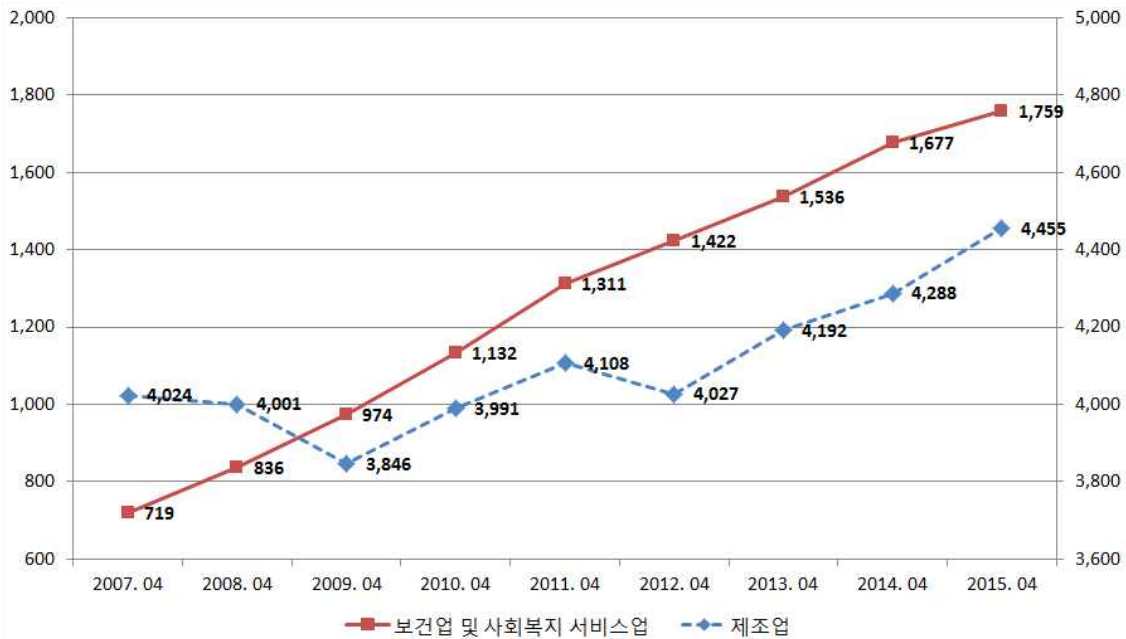
- 취업자는 2,59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 6천 명 증가.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가고는 있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6만 7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2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만 9천 명), 건설업(6만 3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 6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3만 5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만 명), 금융 및 보험업(-7만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15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직후 4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5년 4월 현재 445만 5천 명으로 증가함
  - 사회서비스 산업 역시 취업자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부문의 서비스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 2007년 4월 71만 9천 명이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15년 4월 175만 9천 명으로 증가함

그림 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의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좌측 축, 제조업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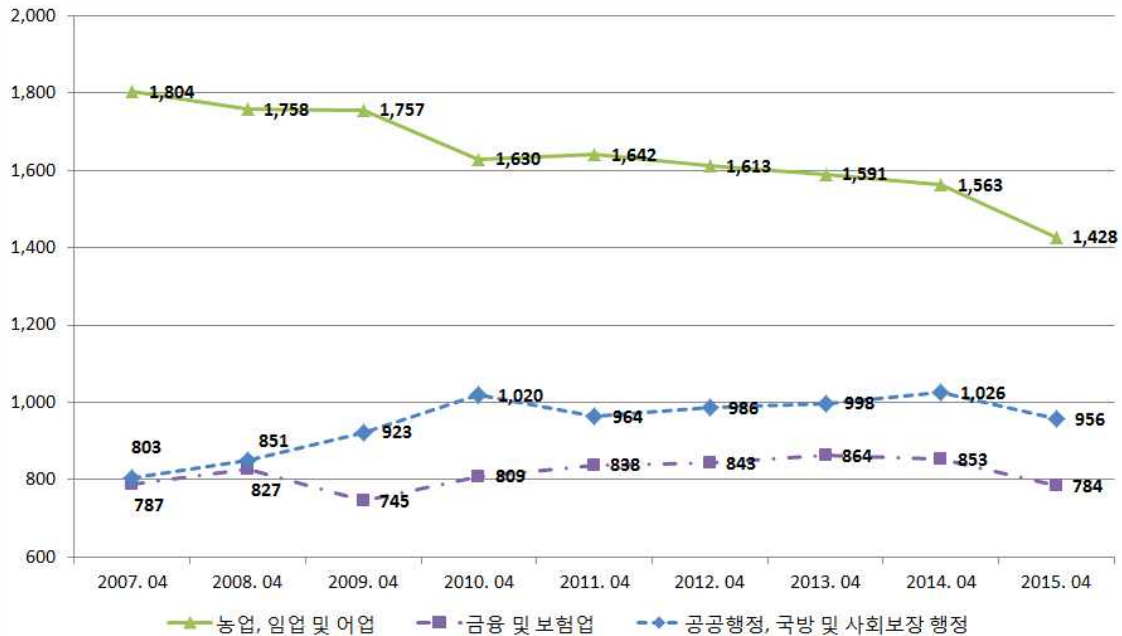
-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임.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수는 2007년 4월 180만 4천 명에서 2015년 4월 142만 8천 명으로 감소
-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 역시 2015년 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4월 86만 4천 명까지 늘어났던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2015년 4월 현재 78만 4천 명으로 감소함. 이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역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015년 4월 현재 취업자 수는 95만 6천 명임.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그림 4. 농림어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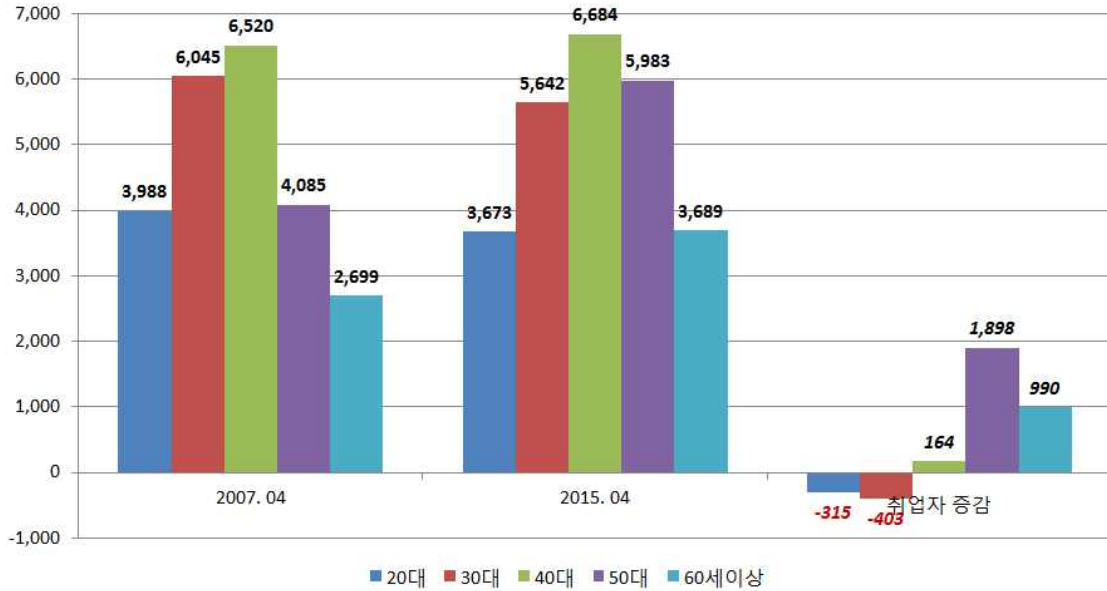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99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1천 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090만 5천 명으로 9만 5천 명 증가함
- 연령계층별로는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의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 전년동월대비 50대 취업자 수는 11만 2천 명,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1만 4천 명이 각각 증가함. 중고령층 인구 증가와 함께 전체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층 취업자 수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반면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동월대비 30대 취업자 수는 6만 8천 명, 40대 취업자 수는 2만 6천 명 감소.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고용률 역시 각각 -0.1%p,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7만 8천 명 늘어났고, 고용률은 0.7%p 상승함
-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20대와 3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50대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수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기업의 고용정책과 관련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됨

- 2015년 들어 청년 취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은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해 낮은 상황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그림 5.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05만 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3천 명 증가함.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3.9%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15년 4월 현재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10.3%임.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일반적으로 청년층의 경우 많은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보임
- 공식적인 실업률은 이처럼 3.9% 수준이지만, 실업자와 함께 잠재경제활동인구<sup>1)</sup>,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sup>2)</sup>를 광의의 실업자를 보고 이들 광의의 실업자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광의의 실업률(통계청 : 고용보조지표<sup>3)</sup>)은 11.3%로 나타남

1)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합계. 여기서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3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가리키며,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함  
2)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 중에서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추가로 취업이 가능한 자



- 비경제활동인구는 1,597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2천 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41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 6천 명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55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6천 명 증가함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과 규모

### ■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

-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해고나 폐업, 저임금 또는 저소득으로 인해 불안정한 삶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노동자들이 존재함
- 여기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 유사한 범주를 가리키는 비정규직 노동자(Irregular Worker)라는 개념이 이미 있음. 정부와 노동계의 정의가 다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킴
- 본고에서 불안정 노동자는 일자리 측면에서가 아닌 삶, 생활 측면에서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는 취업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괄함. 또한 임금근로자가 아닌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그 규모를 고찰함
-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조망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음

### ■ 불안정 노동자는 누구인가?

- 불안정 노동자의 일반적인 의미는 불안정한 삶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노동자들을 의미함. 하지만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논쟁적인 측면이 있음. 사용 되는 국가마다, 또는 연구자마다 다른 개념으로 불안정 노동자를 규정하고 있음
-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자들을 불안정 노동자들로 보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첫째,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봄**
- 현재 정부는 고용형태에 있어 계약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노동자”,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제 노동자”, 파견 및 용역 등과 같은 정규직과 다른 특성을 가진 “비전형 노동자” 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함

$$3) \text{고용보조지표}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그림 6.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개념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정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시직	→ 비정규직
무급가족종사자	시간제	
	비전형	

-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런 정부의 비정규직 개념이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을 전부 포함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음. 즉, 고용형태 상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종사상 지위에 있어 “임시직” 과 “일용직” 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

그림 7.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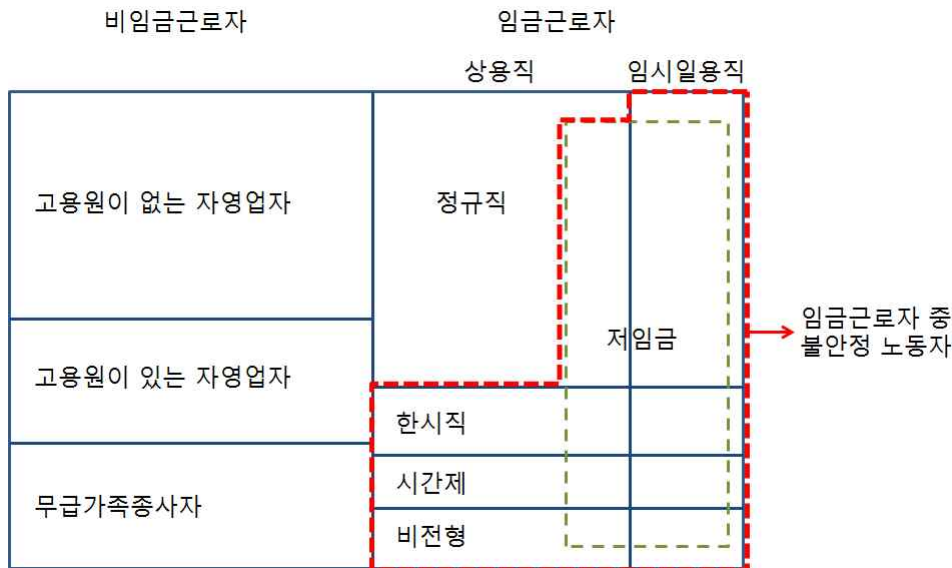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정규직	→ 비정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시직	
무급가족종사자	시간제	
	비전형	

- 여기서는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에 근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봄. 이는 정부의 개념에 근거했을 때 정규직으로 나타나는 정규직 임시일용노동자들의 경우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기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둘째, “저임금 노동자” 역시 불안정 노동자에 포함됨
- 어떤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합의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월평균 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인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구분하고 있음. 이는 삶, 생활에 있어서의 불안정에 대해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간당 임금보다는 월평균 임금을 중심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월평균 임금이 임금근로자 중위 월평균 임금의 2/3(약 126만 7천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규모는 2014년 8월 현재 459만 2천 명이며, 이들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5%임
-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을 통해 임금근로자 중 불안정 노동자의 규모를 계산할 수 있음

그림 8. 임금근로자 중 불안정 노동자



- 셋째, 비임금근로자 중 “영세독립자영업자” 역시 불안정 노동자로 포함하고 있음
- 비임금근로자는 크게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그리고 자영업자는 다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됨
- 여기서는 이 중 고용원이 없는 독립자영업자를 비임금근로 불안정 노동자로 분류하고 있음
- 이는 독립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임금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나 저수익으로 인해 고용원을 고용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이들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음
- 물론 독립자영업자들 중 안정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이들도 있음. 하지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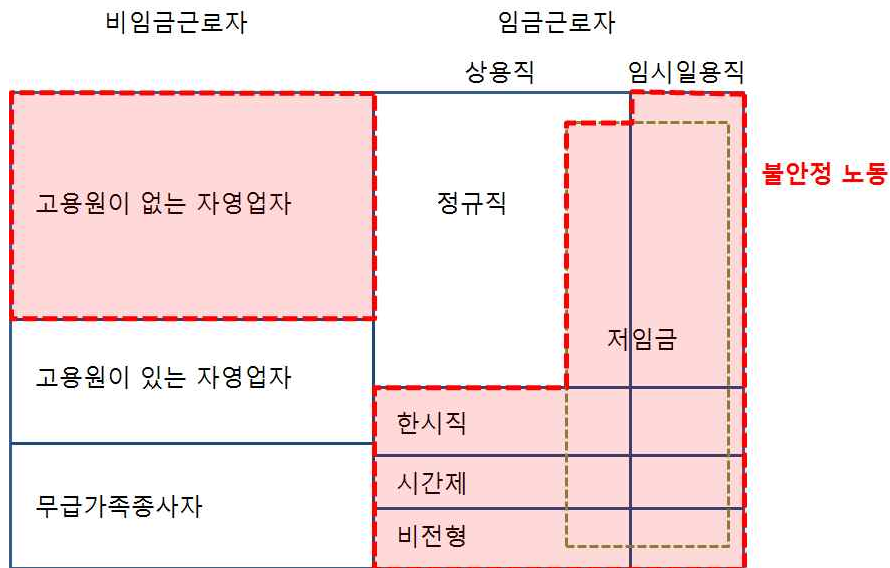




들 중 다수는 삶, 생활이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며, 통계청의 경제 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독립자영업자들 중 안정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이들을 분류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독립자영업자 전부를 불안정 노동자로 분류함

- 그러므로 불안정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영세독립자영업자를 포괄하며, 전체 취업자를 기반으로 이들의 규모를 측정함. 임금근로자 중 불안정 노동자(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할 수도 있음

그림 9. 취업자 중 불안정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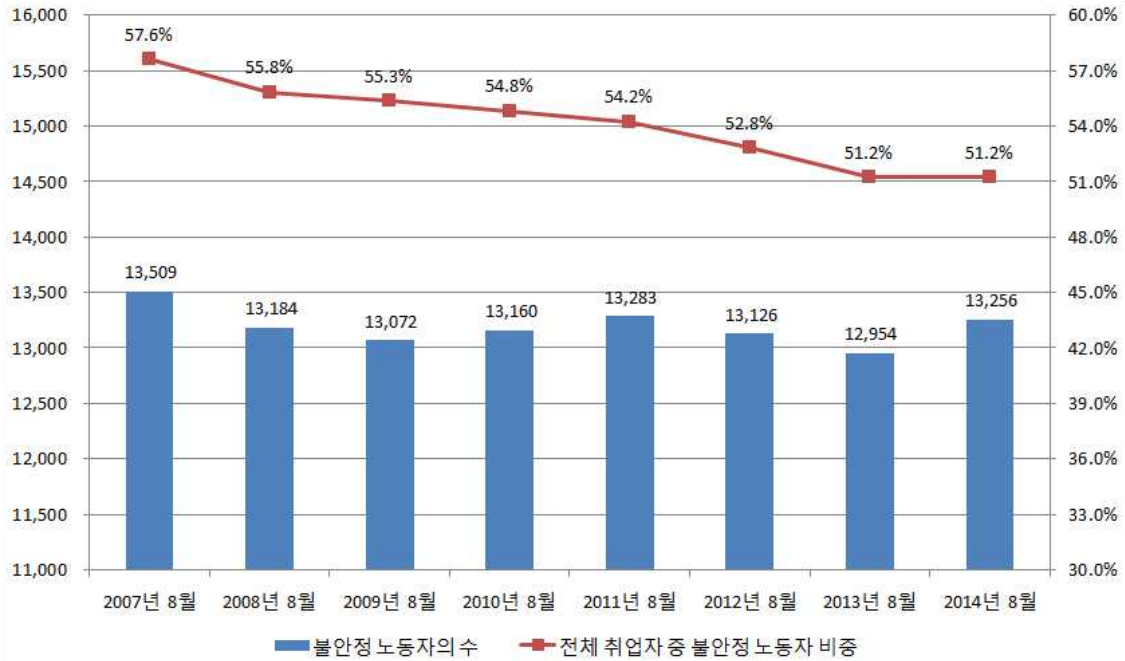
▣ 불안정 노동자의 규모

- 2014년 8월 현재 전체 취업자 수는 2,588만 5천명임. 이상의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 구분해 보면 이들 중 1,325만 6천 명(전체 취업자의 51.2%)이 불안정 노동자임
- 임금근로자로 한정해 보면 2014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877만 6천 명 중 903만 4천 명이 불안정 노동자에 해당됨. 전체 임금근로자의 48.1%가 불안정 노동자임
- 이는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노동계 추산 2014년 8월 현재 852만 2천 명)에 정규직이면서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sup>4)</sup>(2014년 8월 현재 51만 2천 명)가 합산된 값임
- 2014년 8월 비임금근로자 710만 8천 명 중 불안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422만 2천 명임. 이는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59.4%임

4) 전체 저임금 노동자 459만 2천 명 중 408만 명(저임금 노동자 중 88.9%)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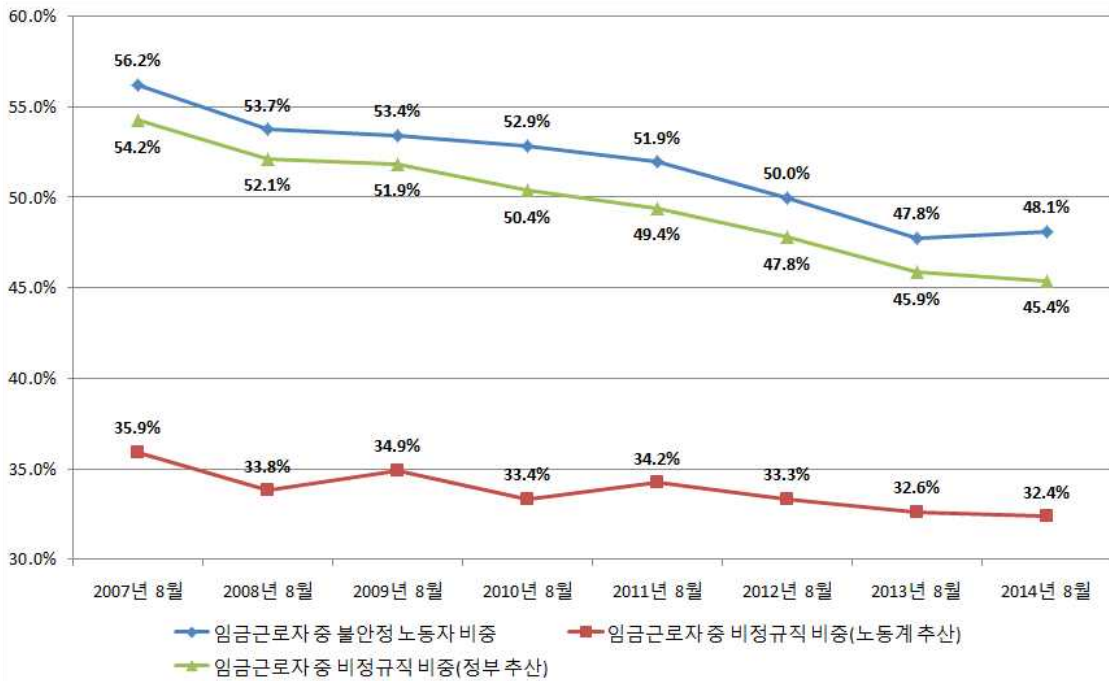


그림 10. 불안정 노동자의 규모 추이 (단위 : 천 명, %)



※ 불안정 노동자의 수는 좌측 축, 비중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부가자료 이용 추산

그림 11. 임금근로자 중 불안정 노동자의 비중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부가자료 이용 추산



- 불안정 노동자의 규모와 전체 취업자 중 불안정 노동자의 비중은 [그림 10]과 같음
- [그림 11]은 임금근로자 중 불안정 노동자 비중과 정부 추산 비정규직 비중, 노동계 추산 비정규직 비중임

▣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

- 전체 취업자를 중심으로 불안정한 삶에 직면해 있는 노동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과 함께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영세독립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들이 여기에 해당됨
- 본고는 이런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삶, 생활에 직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정의해 그 규모를 추산하였음
- 향후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들과 함께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할 예정임.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5월 18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앤,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